



보도시점

2025. 1. 1.(수) 11:00
1. 2.(목) 조간

배포 2024. 12. 31.(화) 16:00

농식품부-해수부, 군 급식용 농수산물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위해 지속 노력

- 2025년 군 급식방침에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유지(2021년의 70% 수준)
- 민간위탁 급식 시에도 국내산·지역산 농·축·수산물 우선 사용
- 접경지역 생산 농·축·수산물 우선구매 조항 신규 명시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와 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, 이하 해수부)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·지역산 농·축·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.

농식품부와 해수부는 「군 급식 혁신 협의체(TF)」(국방부 차관 주재)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·축·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물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.

우선,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·축·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(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% 수준)하기로 하였다.

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역 농·축협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,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, 전(前)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 해수부 또한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.

또한,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·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, 「접경지역지원 특별법」의 내용을 적용하여 “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산물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라는 조항을 신규로 명시하였다.

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“군 급식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.”라고 말하며, “농식품부는 군 급식용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해 군 급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해수부 홍래형 수산정책관은 “군 급식 혁신 협의체(TF)를 통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장병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한 품질 좋은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 체계 개선 및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농축산물>	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영수 (044-201-2111)
		담당자	사무관	이창은 (044-201-2125)
담당 부서 <수산물>	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기원 (044-200-5440)
		담당자	서기관	김수정 (044-200-5447)

